

감사의 말

2016 년 1 월 22 일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상 수여식



독일연방하원 독한의원친선협회장, 한독포럼 공동대표, 한-독통일외교정책자문위 독일측 위원장으로서 2012 년 수교훈장 중 최고의 훈장인 “광화장“을 받은 후, 오늘 한국국제교류재단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독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저와 함께 전력을 다했던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이 상을 받고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독일 분단의 경험과 독일통일의 기쁨이 특별한 배경이 되어, 저의 염원은 독일과 유럽연합이 한반도의 평화, 화해 그리고 자유통일을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상금 10,000 달러는 제가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의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재단의 목적은, 독일 측으로부터 분단 한국과 북아시아에 신뢰구축, 화해 및 인간적인 화합을 이루는 본보기적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발전시킴으로 평화적이고 화해적인 동북아에서 하나되는 한국이라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재단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stiftung-ein-korea.de (통일 한국 재단)

vertrauen.versöhnen.verbinden. (신뢰, 화해, 결합)

요아힘 가욱 독일 대통령은 지난해 10 월 한국방문 국회연설에서 “국가의 분단을 경험한 한국과 독일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 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독일

분단 극복의 역사가 절대로 “청사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단국가에게는 독일의 경험과 교훈이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가욱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남북간 긴장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대화가 중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대화는 이른바 딱딱한 안보정책 주제만이 아닌 경제, 학문, 문화 및 환경에 대한 것이 의사소통의 채널을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뢰와 대화는 평화적인 전환, 합의의 열쇠이다. 그와 동시에 통일을 목표로 한 시선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북한이 수소탄실험 발표를 한 이 때에, 가욱대통령의 말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남북한 친선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행동은 독일과 유럽연합의 대북 포용정책을 어렵게 하고, 전세계가 대북제재 강화에 동의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북한은 국제사회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심각한 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실험은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실험하지 않기로 한 북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로 확정 된 것입니다.

또한 실험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며, 북한의 핵 무기가 다른 손에 넘어갈 위험도 가져옵니다.

새로운 핵실험을 통한 북한의 도발로 김정은은 6 자회담 재개의 문을 닫아버렸고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단절시켰습니다. 북한 핵실험의 배경은,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아직 권력을 충분히 장악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북한 군대에게는 자신이 “힘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제사회 속에서 자신의 권력체계가 불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밝힌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는 국제사회와 결탁 없이, 그리고 남북한 친선을 위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중국입장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정면도전입니다. 저는 중국이 대북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립된 국가의 우방인 중국조차도 북한 핵실험을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평양정부에 “비핵화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핵실험을 한반도 비핵화에 목표에 “위배“ 된다고 표현하였고, 오로지 대화만이 불신을 없앨 수 있으며, 2009 년 이후 이뤄지지 않은 북한, 남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6 자회담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신뢰와 대화는 평화로의 전환, 합의의 열쇠이다“라고 했던 가옥 대통령의 말은 지금 핵실험 상황에 그 어떤 말보다 적합하며, 또한 북한정권에게 국제사회고립을 끝내고 지속적인 한반도 긴장완화를 유지시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독일 정치와 외교, 독일 경제, 독일의 정치 재단, 괴테인스티투트, DAAD,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 또한 Welthungerhilfe (세계기아원조) 와 같은 독일 구호단체, 독일 적십자사와 구교 및 신교회는 비인간적인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남북한의 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10 년에는 독일통일 20 주년을 기념하여 양자 간 전문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이는 독일 통일과정에 대한 정보와 학문적 인식공유를 지원하고 한국 통일정책에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특히 독일은 -가능한 한- 한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정부에게 독일 통일과정관련 국가문서와 그 외 역사적 증거서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2 년에 설립된 한-독 통일자문위원회에는 독일 측 인사로 로타 드 메지에르, 호르스트 텔쉴, 라이너 에펠만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독일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까지 Neues Forum (새 포럼) 소속 동독민권운동가이자 1990 년 동독인민의회로부터 동독국가안보부 해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던 요아힘 가옥 대통령 또한 이 위원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독을 계기로 2014 년 3 월 베를린에서 마침내 남북한 친선을 위해 독일의 노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독일 외무장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나와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를 세우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는 2014 년 9 월에 체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2014 년 10 월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서울에서 구성되었고,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저를 독일 측 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한국측에서는 한승주 전외교부장관이 위원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양국 전문가 7 명씩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독일통일의 외교적 부분에 있어 어떠한 경험이 한반도 상황과 동북아 주변에 적용될 수 있을지를 논의 합니다. 제 3 차 회의는 가욱 독일대통령의 방한했던 지난 10 월에 개최 되었습니다.

작년은 독일 통일 25 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2 차 세계대전 종전 70 주년인 동시에 광복 70 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2 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독일과 한국의 분단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독일은 한국과 40 년간 분단의 운명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독의 평화적 혁명 25 년 후에도 독일 내 분열극복과 한반도의 계속되는 분단은 독일과 한국을 결합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일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력으로 남북한의 친선과 정의와 자유 속에서의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25 년 전, 1990 년 10 월 3 일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동시에 이 날, 10 월 3 일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10 월 3 일은 국가적인 통일을 기념하는 “개천절“로 양국의 역사는 접합점을 갖습니다. 이 날은 단군이 기원전 2333 년에 한국의 첫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건국기념일입니다. 이 날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이 날은 단군을 통하여 나라가 세워짐을 기념할 뿐 아니라, 기원전 2457 년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백두산에 내려온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나라와 민족의 기원을 숙고함으로 민족근원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합니다.

저는 통일 한국의 날이 도래할 것을, 또한 단군 정신의 한국민족이 통일, 평화, 자유 속에서 민족 자결권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분명 기대하는 것 보다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1989 년 초, 전 세계 아무도 그 해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독일이 이듬해에 통일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10 월 3 일을 독일통일기념일로서, 또한 통일 한국의 개천절로 함께 기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긴 역사 속에서 지난 70 년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것입니다. 가옥대통령이 연설 마지막에 했던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 독일은 통일로 인해서, 그리고 통일로 인해 새롭게 주어진 역할로 인해서 유럽과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독일의 책임은 관심을 갖고 또 한국이 원한다면 조언을 하면서 한국의 여정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국제교류재단상을 받을 수 있는 영광에 감사 드립니다. 이 상은 저에게 격려이자 동시에 의무입니다. 앞으로도 한-독 관계와 한국통일을 위한 남북한 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